



O₅RChestra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는 오알켄, 오알켄중국, 오알켄비나, 오알시솔루션, 에이엘에스가
하나 되어, 하모니를 이루며 연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ORCHEM



China



Vina



ALS



Solution



ORchestra



ORCHEM

O! Quiz 이벤트!
 사보 마지막 페이지 O! Quiz를 풀어보세요!
 임직원 1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응모방법 : 전영례 사원 메일(jyrea@orchem.com)로 응모
 ※ 본 이벤트는 랜덤추첨으로 진행됩니다.



발행처 (주)오알켄
 발행일 2022년 10월 4일 (통권 제 6호)
 편집 전영례
 디자인 민선경
 기사단 ORCHEM (본사) 김진영, 박서연
 ORCHEM (중국법인) 莫秋玉 Mo qiu yu
 ORCHEM (베트남법인) Jang
 오알시솔루션 박승영, 김준용
 에이엘에스 이지영
 전화 031-488-0600



CONTENTS

04 O! Hightlight
 06 O! News
 12 Inside ORChemer
 18 31주년 창립기념 수상자
 20 O! 소통 Day
 22 슬기로운 오알켄 생활
 23 O! Research
 24 산업 / 기술동향
 26 O! Language
 28 O! Culture
 30 O! Campaign
 31 O! Health
 32 O! Test
 33 O! Quiz

2022 3Q ORCHEM 주요 활동 돌아 보기

결실의 계절 가을!

무수히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인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알켄의 지난 3분기 활동을 돌아볼까요?

0! Highlight
2022년 3Q

07월 31주년 창립기념식



07월 SK Hynix 이웅선 박사님 강연



08월 신규 미술작품 전시
(김혜수 작가님 사옥 방문)



08월 유해화학물질 특별 안전교육 실시



09월 KPCA show 참가



07월 베하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관람



08월 사내공원 파고라 완공



09월 삼성전기 협부회 사옥 견학 방문



● 오알켄 최신 소식



<온라인 신문고 도입> 

오알켄이 투명하고 건강한 회사를 위해 익명으로 신고·제보하는 온라인 신문고를 도입하였습니다. 오알켄의 임직원과 오알켄을 이용하시는 고객, 주주 및 협력회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오알켄의 윤리경영 및 경영개선을 위해 마련된 커뮤니케이션 창구입니다. 홈페이지 제보하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알켄 창립 31주년 기념식>

지난 7월 1일은 오알켄의 창립 31주년 기념일로,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창립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행했던 지난 기념식과 달리 오알켄 임직원들이 함께 축하하고 즐길 수 있었습니다. 기념식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이충호 대표이사님의 개회사와 남기재 고문위원님의 축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서 5년·10년·15년 장기근속 포상 수여식과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더욱더 성장하고 도전하는 오알켄을 위한 이재현 사장님의 기념사와 케이크 커팅식으로 1부 행사를 마쳤습니다. 쉬는 시간 후 시작된 2부는 즐거움과 다채로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2부의 첫 순서는 '나만의 목표를 담은 캔버스 조명 만들기'였습니다. 똑같은 도안이라도 오알켄 각자의 개성이 담겨 하나뿐인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기다리던 대망의 오알켄 복면 가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31주년 창립기념식의 하이라이트 순서로 총 12팀, 20명의 오알켄인들이 무대를 꾸며주었습니다. 발라드부터 댄스곡까지, 솔로부터 듀엣과 단체팀까지 다채로운 구성과 평소 회사에서 보던 모습들이 아닌 숨겨둔 끼를 맘껏 보여주었습니다. 복면 속 주인공이 누구일지 추리하는 즐거움도 있었답니다.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경품 추첨의 시간과 단체사진을 마지막으로 어느 때보다 기억에 오래 남을 오알켄의 31주년 창립기념식을 마쳤습니다.



<제10회 베하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7월 12일, 오알켄이 후원한 “제10회 베하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연주회의 제목인 AGAIN은 전 세계를 어둠 속에서 주저앉혔던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 다시(Again) 희망을 노래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기획한 즐거운 축제의 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바이올린과 트럼펫의 독주와 베이스·테너·소프라노 성악가의 공연으로 구성되었고 지휘자님의 작품 설명을 통해서 더 풍부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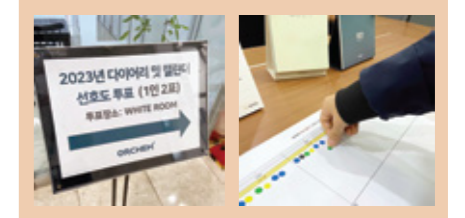
<SK Hynix 이웅선 박사님 강연> 

7월 15일, SK Hynix의 이웅선 박사님의 강연이 오알켄 PURPLE ROOM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웅선 박사님은 ‘반도체 기술 및 시장 전망과 이에 따른 PCB 기술 변화’라는 주제로 반도체와 PCB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무엇이 시장을 이끌어 나가게 될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강연을 통하여 현재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오알켄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오알켄 최신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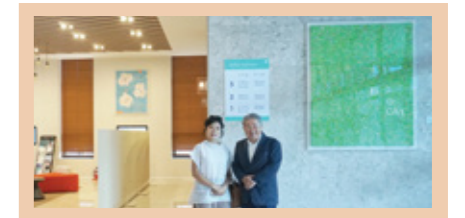
<오알켄 2023년 다이어리 선호도 조사>

지난 8월 3일 2023년에 사용하게 될 새로운 오알켄 다이어리와 달력을 위해서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친환경적인 종이와 페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다이어리, 천으로 만들어진 다이어리 등 커버의 소재도 선택하고 사용하게 될 내지의 종류와 소재 그리고 일정을 체크할 달력까지 직접 고르는 다이어리 선호도 투표였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다이어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모두 기대해 주세요.



<새로운 미술 작품 전시> 

오알켄에서는 사옥 곳곳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무동 1층 로비와 3층 식당(O! Bapzip)에 새로운 작품이 전시되었습니다. 모두 김혜수 작가님의 그림으로 다양한 삶이 화합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표현한 “Garden of Life (2020)”와 “Garden of Life(2022)” 그리고 네잎클로버의 행운을 나누고 싶은 작가님의 소망을 담은 “Happiness(2022)”라는 작품입니다. 세 작품의 아름다움을 감상해 보세요.



<사내공원 파고라 커뮤니티룸>

지난 분기에 화사하게 바뀐 사내공원에 또 하나의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파고라 커뮤니티룸! 4면이 모두 창으로 되어, 사내공원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TV, 에어컨 등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예약은 필수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 

오알켄은 화학 약품을 다루는 회사로서 관련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특별 안전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안전한 취급 방법과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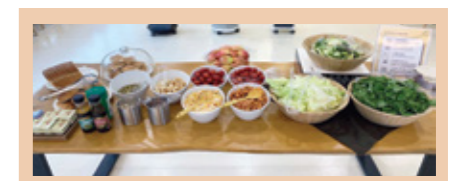
<삼성전기 협부회 오알켄 방문견학>

9월 16일 삼성전기의 협력사 협의회인 ‘협부회’에서 오알켄 본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본 방문 견학은 제조 현장 견학을 통해 협력사 간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로비와 홍보관이 위치한 사무동을 시작으로 연구동과 생산동까지의 투어가 이루어졌습니다.



<O! CAFE 샐러드바 출시> 

오페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오알켄들을 위해 주 1회 운영되는 샐러드 바입니다. 신선한 과일부터 빵과 D.I.Y 샐러드까지 알차게 구성되었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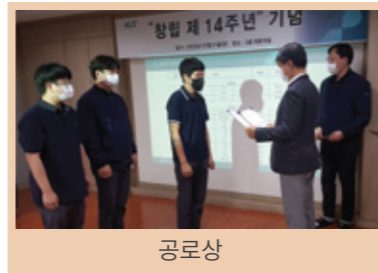


● ALS 창립 14주년 기념행사

(ALS 이지영 기자)



모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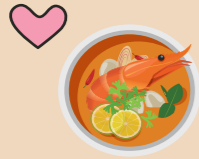


공로상



공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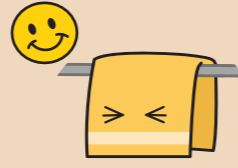
ALS는 2022년 7월 1일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여 대회의실에서 팀장급과 수상자로 구성된 소규모 인원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상 순서는 공로상, 모범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나아가 20,30주년에 ALS의 도약을 위해 함께 힘쓰며, 과거의 회사 모습을 상기시키며 허심탄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특식



백설기



수건

내년 창립기념일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창립기념일을 인지하여 보다 기억에 남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리고 꾸준히 노력하면 때때로 벼락처럼 보상받는 날도 있다"라는 벼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의 말처럼 각자 본인의 포지션에서 최대한의 능력치를 발휘하면 언젠가는 보상받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 잘 이겨내어 회사가 더욱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립기념 선물 수여식




창립기념 선물 수여식




다음은 창립기념 선물 전달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게시판에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세 가지 상품 중 개인이 원하는 선물 한 가지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특별한 중식과 백설기 떡, 수건 세트를 제작하여 임직원 모두 회사의 창립기념일을 축하하며 의미 있고 뜻 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 ORC솔루션 입사 이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것

(ORC솔루션 박승영, 김준용 기자)

캘린더를 활용한 나만의 시간관리  by 박승영 사원

제 MBTI는 ISFJ입니다. 그중 계획형이라고 불리는 J(Judging)가 80%인 만큼 계획을 많이 세우는 편입니다. 출근 이외엔 모든 스케줄을 항상 기록해서 시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약속이 잡힌다 싶으면 달력에 한번 적고, 핸드폰 캘린더에 한번 이렇게 두 번을 적고 난 뒤 시간관리를 또 세웁니다. 일정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적다 보니 저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달력에는 큰 이벤트 위주로 타이틀을 적고, 핸드폰 캘린더에는 시간과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메모합니다. 핸드폰은 항상 주변에 두고 사용하다 보니 시간 장소 상관없이 수시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꾸준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전, 다이어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날 하루 있었던 일이나 느꼈던 감정, 고치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것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적곤 합니다. 편리한 디지털도 좋지만, 아날로그적인 손으로 쓰는 다이어리를 통해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나를 위한 아침 산책  by 김준용 사원

저는 작년 1월부터 아침 산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군 전역 후 바로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운동도 안 하게 되고, 식단 관리도 안 되면서, 입사하기 전보다 입사 후 살이 많이 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자기관리의 일환으로 군대에서 했던 아침 구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회사 근처에 자취방도 구하게 되면서, 동네 지리도 익히고 운동도 하면 좋을 것 같아 집 근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가벼운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산책하기 전의 기상시간보다 50분 정도 일찍 일어났는데 처음에 산책할 때는 일어나기도 싫고 엄청 피곤함을 느꼈지만, 참고 꾸준히 하다 보니 아침 산책으로 인해 정신이 맑아지면서 몸도 개운해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말 제외하고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있고 가끔은 퇴근 후에도 동네를 걸으며 저녁 산책을 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부모님 댁에서 강아지와 같이 산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실천할 생각입니다. 

● 오알켄 중국법인 구매자재팀 Amanda 인터뷰

(오알켄 중국법인 Mo qiu yu 기자)

많은 사람들이 구매자재팀을 “成本中心(Cost center/원가중심)”, “现金流出(Cash-out flow/돈이 나가는 곳)”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구매”는 더 이상 지출의 단순한 연산자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더 많은 가치와 공헌을 더하는 진정한 기업의 새로운 엔진이 되었습니다. 이번 ORchestra 6호에서는 중국 법인의 구매자재팀, Amanda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물소개: Amanda (全伟平, 취안웨이핑)

광둥어,만다린어,영어에 능통하여 의사소통 및 조정에 능숙하며, 다년간의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음.

주업무는 국내외 원자재 및 기타 소모품 조달을 담당.

2007년 1월에 입사하여 15년 동안 근무중.



Q: 안녕하세요, 아만다. 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A: 구매자입니다. 주로 사업부에서 제공하는 생산 계획 및 고객 요구에 따라 원자재 및 상품 구매, 수입 용기의 세관 신고, 데이터 수집 및 검사, 신규 공급업체 조사 및 평가와 공급업체 관리, 공장 및 ISO 인증 감사에서 고객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본사와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일하면서 가장 뿌듯했거나 힘들었던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A: 기억에 남는 뿌듯한 일은 이례적으로 어렵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산된 원료가 제때 입고될 수 있도록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3월에 심천, 4월-5월에 상해와 쿤산이 봉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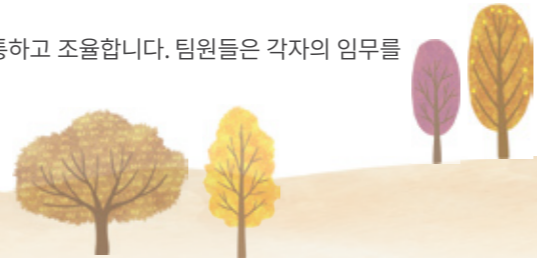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각 공급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중국 법인의 원자재 생산 중단은 없었습니다.

힘들었던 일은 수입품의 납기가 길어져 바이어의 주문이 불안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해 봉쇄로 인해 당사의 수입 컨테이너가 상해항에서 닝보항으로 넘어간 후 다시 난징항으로 옮겨졌습니다. 자재 공급을 하기 위해 긴급 항공 수송을 이용하였고, 추가적인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안정한 수요-공급 상황이 회사의 재고 및 안전 재고에도 영향을 끼쳐 때때로 재고 부족 상태나 재고 과잉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 본사 영업관리팀의 대내외적인 조율과 중국 법인 영업팀과 공급업체 간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으로 인하여 납품이 중단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영업관리팀의 윤지수 주임과 김진영 사원, 그리고 중국 법인 영업팀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이해와 지원으로 많은 것들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중국 법인의 구매자재팀은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나요?

A: 구매자재팀은 강한 결속력과 실행력을 가진 팀으로, 여러 부서와 소통하고 조율합니다. 팀원들은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며 회사의 수익 증대와 지출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오알켄 베트남법인 도금공장 신축

(오알켄 베트남법인 jang 기자)

베트남 법인의 도금 공장은 2021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장은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은 원자재 및 약품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2층은 동도금 생산 구역입니다. 전기동 및 화학동, 디스미어, 블랙홀 라인이 한국에서 들어와 통관 절차 후 여기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3층은 전기 설비 및 소방 설비를 위한 공간입니다. 계획에 따라 도금 생산 공정을 가동하기 위해 최근, 오알켄 비나는 입출고 관리자, 품질 분석자, 생산 직원과 같은 직책에서 2번의 소규모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9명의 새로운 직원이 오알켄 비나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시기에 새로운 도금 공장이 오알켄 비나가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알켄 비나가 오알켄 전 임직원들에게 든든한 받침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VINA 도금 공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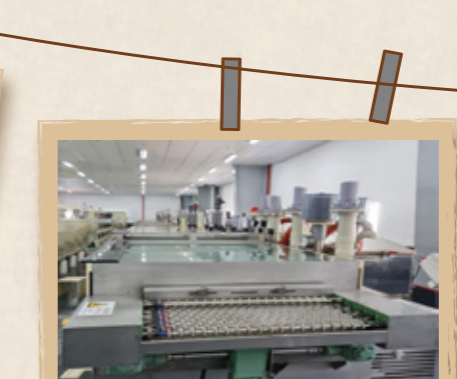
화학동 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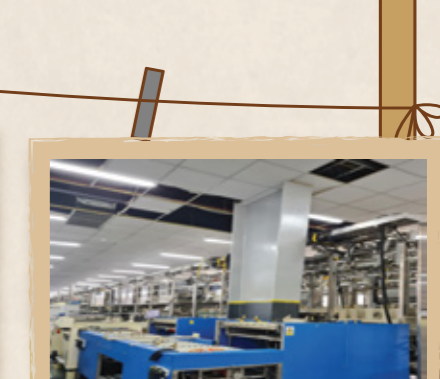
디스미어 라인



도금 공장 창고



블랙홀 라인



전기동 라인

O! Interview

중앙연구소장 김건범 상무님♡



(오알켄 김진영 기자)

사우회장 윤정식 직장님♡



(오알켄 박서연 기자)

1. Q: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알켄 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김건범입니다. 저는 신소재 금속공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화학업종과 다른 비전공자이지만, 절실한 마음만 있다면 전공과 무관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직원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 Q: 올해 오알켄에서 16년이 되셨는데, 근무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A: 제가 입사해서 처음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했던 ORC-190(PSR전처리)제품의 출시를 위해 고객사에서 양산평가를 진행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고객사로 방문 후 새벽 4시까지 밤을 꼬박 새우면서 진행했음에도 약품의 결과는 그대로였습니다. 회사로 복귀하면서 큰 좌절감과 능력의 한계를 느껴 퇴사의 결심을 하였습니다. 2시간정도 자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고객사로 재방문을 했는데, 놀랍게도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만족하였습니다. 지금은 하나의 에피소드로 이야기하지만 현재까지도 품질수준을 만족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다 보면 기이한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현재 시점에서도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3. Q: 출근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루틴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A: 출근하는 길에 늘 오늘 하루 아무일 없이 계획대로 업무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특히 고객사 품질 상황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 보니,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며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강점진단에서 1위가 '복구'더군요. 기술팀 지성배 부장님도 복구가 1위가 나왔더군요. 그리고 요즘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연구소 직원들과 편하게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성격이 내성적 이다보니 조금 어렵습니다. 평소에 걸어가면 화났다고 생각하는데, 화난 상태 아닙니다. 그저 표현에 서툰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연구소뿐만 아니라 타 부서 직원들과도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무님의 MBTI는 INFJ이라고 합니다!)

4. Q: 오알켄 연구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이 질문을 받고 든 생각이 저는 항상 단점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쉬운 점, 부족한 점들만 보며 업무를 하다보니 우리의 장점을 생각해본 적이 없더군요. 오알켄의 중앙연구소는 동종업계의 기업부설연구소들과 비교하여, 연구소의 규모와 환경이 우수합니다. 특히 분석실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갖추기 어려운 분석장비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실험실과 파일럿실, 신뢰성실, 시약실 등 연구를 위한 다양한 시설과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어 연구의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5. Q: 앞으로 연구소가 나아가야할 방향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오알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부환경(ESG)에 발맞춰서 화학제품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新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제품을 발굴하여 오알켄만의 총알을 준비하여 국내/외 고객의 니즈를 겨냥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Q: 퇴근 후에는 주로 무슨 일 하시나요?

A: 예전에는 퇴근을 해도 고객사 트러블 대응이나 개발 관련된 생각을 주로 했으나 요즘에는 퇴근 후에 업무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반려견과 같이 산책을 하거나 아이와 함께 공부를 봐주거나 보드게임을 같이 합니다. 아내와도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1. Q: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생산팀 물류파트에서 비담(비주얼담당)을 맡고 있으며, 동시에 사우회 회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고 있는 윤정식 입니다.

2. Q: 사우회장이라는 직책이 신규 입사자 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직책인지, 사우회란 어떤 조직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우선 우리 회사의 사우회라는 조직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알켄에서의 사우회란 회사와 직원 간의 사이에서 소통을 연결해 주고, 동료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직장동료분들이 직장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는 동력의 역할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사우회 내 각종 경조사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며, 동호회 활동, 봉사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활동을 하기 위해 직원분들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대표 자리가 사우회장이라는 직책입니다.

3. Q: 사우회 회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낀 순간 공유 부탁드립니다.

A: 매 순간순간이 모두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중 제가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몇 해전 이재현 대표님을 포함한 약 30여 명의 직원들과 가족들이 함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한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날 딸과 함께 처음으로 봉사 활동을 하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돌보고, 김장도 담그고, 청소도 도왔습니다. 그날 저녁 딸과 함께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저의 딸이 '아빠, 보람되고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거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4. Q: 사우회장님으로서 동시에 출하팀에서 14년째 일하고 계신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본인만의 체력관리법이 있나요?

A: 특별한 관리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축구, 볼링, 야구 등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삼시 세끼 잘 챙겨 먹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 Q: 우리 회사 사우회 이 점만은 최고다!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동호회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약 2년 동안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올해 들어 새로 활동하는 동호회 활동이 해당 부서만이 아닌, 타부서/상하관계에 있어 서로가 얼굴을 보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하는 활동이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6. Q: 앞으로 사우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A: 우선 직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낯설고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사우회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직장 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와 직원 간의 소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원 모두가 오알켄 사우회 회원으로서 더 좋은 회사, 사랑받는 회사, 출근하고 싶은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Q: 마지막으로 오알켄 사우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A: 오알켄 사우회가 창립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임직원분 모두가 사우회에 대해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직 사우회 직접 참여자가 아니어서 낯설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참여 자체가 사우회의 발전, 오알켄의 성장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Inside ORChemer 인사말

Inside ORChemer O! Thank you

O! Interview

(오알캠 김진영 기자)

오알캠의 제품이 만들어져서 납품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생산팀!
그 중 생산파트의 이수로 직장님, 주용기 선임님, 출하납품파트의 정일룡 기장님을 만나볼까요?

Q1. 각자 생산팀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시나요?

이수로 직장 : 생산파트에서 파트장으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일룡 기장 : 출하납품파트에서 파트장 역할을 맡고 있으며, 완제품 보관부터 고객사 출고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용기 선임 : 저는 생산동 1층에서 자동 소분기 설비 운용 및 수동 소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2. 생산팀 최고의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인가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비결은요?

이수로 직장 : 주진성 사원입니다.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하다 보면 즐겁습니다.

정일룡 기장 : 박재신 선임입니다. 일할 때 구수한 사투리와 특유의 친화력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즐겁게 만듭니다.

주용기 선임 : 이수로 직장이 현장 분위기를 좋게 해주고, 동료 직원들의 고충과 편의를 많이 생각해 줍니다.

Q3. 즐겁게 일하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도 힘든 순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나요?

이수로 직장 : 하는 일에 몸이 고되지만 운동이라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회사 사람들과 회식 후 간단한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정일룡 기장 : 식후 낮잠을 통해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주용기 선임 : 따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지는 않고, 참고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트레스를 잊게 됩니다.

Q4. 일을 하시면서 뿌듯하거나 아쉬웠던 점 등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수로 직장, 정일룡 기장 : 뿌듯한 점은 같은 파트원들과 협업 및 소통이 잘 이루어져 업무가 유연하게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계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환경이다 보니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용기 선임 : 시간이 지난 뒤 문득 뒤를 돌아 보았을 때 내가 생산 업무에 한 부분을 담당했었고, 이만큼 기여했음을 느낄 때 뿌듯합니다.

Q5. 오알캠에서 근무하시고 난 뒤, 본인에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수로 직장 : 책임감입니다. 생산파트의 파트장으로써 책임감을 느끼고 일하고 있습니다.

정일룡 기장 : 제품 출하로 말통을 챙기면서 체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알통이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느낍니다.

주용기 선임 : 아무래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통장 잔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Q6. 생산팀은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수로 직장 : 생산팀은 '최강팀'이라 자부합니다. 20대 직원들도 많은데 일할 때 다 같이 으쌰으쌰하며 뚝뚝 뭉쳐서 일하고 있는 최강팀입니다.

정일룡 기장 : 생산팀은 '노하우'입니다. 출하납품파트의 구성원들이 직장, 기장, 선임으로 다 오래된 직원들인 만큼 다들 스킬들이 노련해 상대방을 잘 알고 배려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5년 정도 꾸준히 진행됨에도 사고 없이, 인명피해 없이 일하고 있어 '노하우'를 갖춘 팀이라고 자부합니다.

주용기 선임 : 생산팀은 '식구'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자주 보기도 하고, 일하며 부딪히고, 웃고, 싸우고,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같이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팀 개념보다는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Q7. 오알캠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이수로 직장 : 타부서원들과 교류 기회가 많지 않아 얼굴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아쉽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서로 얼굴을 알고,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지 알고 밝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일룡 기장 :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좋으면 직장을 오래 다니는 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생산팀도 흔히 말하는 '꼰대' 분위기가 아닌 어린 직원들이 회사와 같이 성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마인드를 항상 세팅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수로 직장님 의견과 같이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O! Interview



(오알켄 박서연 기자)

“신규 입사자 소개”

오알켄의 새로운 식구를 소개합니다!



전략기획팀 김선미 과장



기술팀 이진규 주임



개발1팀 우상우 주임



기술팀 강우람 사원

Inside ORChemer
신규 입사자 소개

Q.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01

김선미 과장 : 안녕하세요 5월 입사한 전략기획팀 김선미입니다.

이진규 주임 : 안녕하세요. 5월 3일 입사한 기술팀 이진규 주임입니다. 원래 같은 PCB 업계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오알켄 예칭 약품을 사용하는 고객사에서 일을 하다가 오알켄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우 주임 : 안녕하세요. 개발 1팀의 주임연구원 우상우입니다. 저는 표면처리 약품회사를 다니다가 오알켄에 입사하였습니다.

강우람 사원 : 안녕하세요. 기술팀 막내 강우람 사원입니다. 오알켄이 첫 직장이고,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Q. 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02

김선미 과장 : 전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Rule Setting과 회의체, IR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주임 : 코리아써킷 2공장 대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라인은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고, 요청 테스트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KCC에서 요청한 테스트를 진행하다 잠시 짬을 내서 왔습니다. ^^

우상우 주임 : 화학동 관련하여 개발 및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표면처리 업계에서 일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평가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우람 사원 : 보통 기술팀이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신규 라인 셋업, 현장 요구에 따른 테스트 진행 등을 진행하는데, 저는 신입사원이다 보니 선배님들 지시에 따라 연구동에서 실험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출근 후 가장 먼저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03

김선미 과장 : 차가 밀리는 시간을 피해서 일찍 출근하는 편입니다. 먼저 하는 일을 정하진 않고 날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진규 주임 : 보통 전날에 테스트했던 데이터를 정리해서 고객사에 전달하고, 고객사에서 김정호과장님께 요청한 내용을 지시받아 테스트 합니다.

우상우 주임 : 실험에 쓰이는 기계들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실험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강우람 사원 : 오키아에서 조식을 먹습니다. 먹는 메뉴가 고정적이진 않고 그때 먹고 싶은 것 위주로 고르는 것 같습니다.

Q. 오알켄에 처음 왔을 때의 이미지와 현재의 이미지가 어떻게 다른가요?

04

김선미 과장 : 첫 이미지 그대로 여전히 설레고 즐겁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조금씩 더 확연하게 눈에 들어오다 보니 직원분들이 많아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분입니다.

이진규 주임 : 처음에는 딱딱할 줄 알았는데, 카페도 있고 분위기도 생각보다 밝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워낙 초반이다 보니 힘들다 하는 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상우 주임 : 일단 PCB 업계 쪽을 경험하고 와서 그런지 회사에 이미지는 대충 예상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은 분위기와 좋은 팀원들에게 받은 영향력으로 인하여 회사의 이미지 자체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우람 사원 : 처음 면접 봤을 때 받은 인상은 '깔끔하다'입니다. 인사팀에서 친절히 안내해 주셨던 기억도 나고요. 특히 카페가 있어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입사한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처음 느낌 그대로 비슷합니다. 입사 후 창립기념일 행사 때 경품추첨에 뽑혀서 좋았습니다. ^^

Q. 퇴근 후의 삶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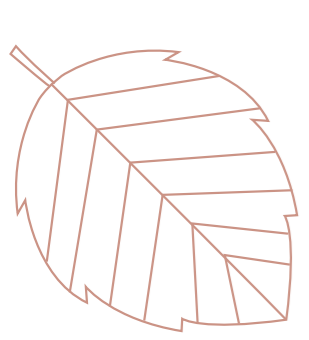
05

김선미 과장 : 풋살, 볼링, 사진, 가족공예, 배드민턴 등 하고 있는 취미가 많습니다. 지금은 풋살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시간이 나면 다른 운동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업무능력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진규 주임 : 보통 퇴근하면 야근이 잦아서 7-8시가 되는데, 제가 사실 신훈이라서 아내와 맛있는 밥 먹고, 술 한잔하며 피로 풀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재밌는 영화도 한편 볼 때도 있습니다.

우상우 주임 : 주짓수를 배우지 3개월 차인데요. 주짓수를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운동도 배우고 하면서 개인 도복도 구매해서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차를 좋아해서 필요한 도구를 다 구비하였고, 정비병으로 군 복무를 하여서 가끔 친구나 부모님의 차를 정비해주기도 합니다.

강우람 사원 : 퇴근하고 주로 피곤하더라도 알차게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피곤하다고 무작정 쉬면 삶이 무료해지고 더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한편씩 보거나, 쇼핑을 하나씩 하기도 하면서 하루에 무엇이라도 하나씩 다양한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알켄과 함께 성장한 '오알켄인'

오알켄 31주년 창립기념 임직원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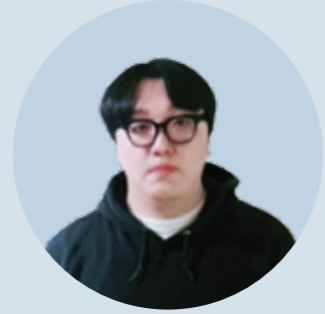
2022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1일, 오알켄의 창립 31주년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한 30년을 지나 함께할 100년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해로서, 이번 기념식에는 장기 근속자 포상 수여식과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오알켄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한 5년, 10년, 15년 근속의 오알켄인과 회사의 다양한 모습을 직원들이 직접 촬영하고 공유한 사진공모전에서 직원들의 투표로 선정된 사진공모전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오알켄인을 만나볼까요?

31주년
창립기념
수상자



5주년

장기근속
포상



분석팀 장혜림 대리



생산파트 주용기 선임



마케팅팀 이정영 주임



마케팅팀 박민욱 대리



구매자재팀 최대성 대리

10주년

장기근속
포상



인사총무팀 조완수 과장



기술팀 김정호 과장

15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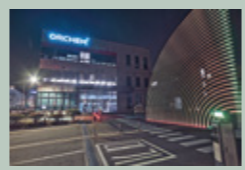
생산부 손성철 상무



사진 공모전
수상



품질팀 김주완 과장



Gate of world



영업관리팀 윤지수 주임



쌍무지개가 뜬 오알켄



개발1팀 구자원 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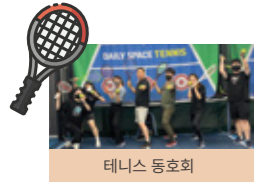
겨울과 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이! 소통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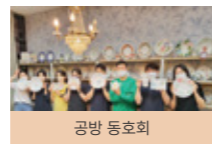
동호회 활동!

동호회란 같은 취미를 가지고 함께 즐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취미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팀, 직급 구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즐거움을 공유하며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있는 오알캠의 사내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테니스 동호회

2040 세대들에게 새로 불어오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테니스 붐~! 동네에 있는 테니스 학원은 대기를 걸어둬야 할 정도로 요즘 대한민국은 테니스 붐이라고 할 수 있죠!
초보들도 환영합니다! 물론 베테랑도 환영합니다! 라켓 없어도 환영합니다!



공방 동호회

공방 동호회는 '공방을 놀러 다녀보자!'라는 취지로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공방 체험 비용이 비싸다 보니 싸고 좋은 곳을 찾기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엔 다양한 체험들이 가능해졌어요!
다들 공방 체험하러 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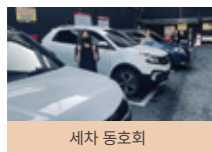
풋살 동호회

풋살경기는 힘들긴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빠르게 친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이 호흡을 맞추고 맘 풀리면서 느낄 수 있는 풋살만의 장점을 느끼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동호회 대표에게 연락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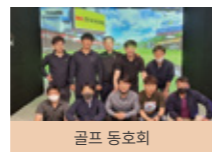
볼링 동호회

볼링 동호회는 개인이 아닌 팀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며 볼링을 처음 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싶으신 분, 볼링은 치고 싶는데 혼자 치기 싫은 분, 볼링을 좋아하고 즐길 준비가 되어있는 분,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세차 동호회

손세차 해보신적 있으세요?
세린이라면 덜컥 겁부터 먹고 시도조차 하지 못할 테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차 동호회에서 1달에 1번! 세차의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함께 도전해 봐요~~ (비 오거나 피곤할 땐 자동세차 돌리고 회식도 가능한 건 비밀!)



골프 동호회

오잘모(오알캠에서 공을 제일 잘 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는 동호회명처럼 아직 실력은 부족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임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입해 주세요~~



영화 동호회

그간 코로나로 인하여 극장 방문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화 감상을 좋아하는 오알캠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었습니다.
영화 동호회는 그 달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서 보고 싶은 영화를 한 달에 한 번 관람합니다. 물론 영화 관람의 필수인 팝콘과 클라도 함께 한답니다!!



스포츠 동호회

NEW

NEW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20 KC



배드민턴 동호회

배드민턴 동호회는 매주 '화요일' 자율모임이 있고, 동호회의 날이 있는 3번째 주 화요일에는 정기모임으로 모두가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열심히 활동해서 다양한 부서, 다양한 나이로 구성된 활동적인 동호회가 되고 싶습니다!

51.PUB!

회사 밖에서 하루의 즐거움, 고단함 등의 회포를 풀고 싶은 오알캠인은 어디서 모일까요?
바로 비용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오알캠의 소통공간 51.PUB!



이! 소통 Day
동호회 & 51.PUB!

핵심가치 4가지 (정직신뢰, 무한도전, 프로정신, 사회적책임)

즐거로운 직장생활

2020년 수립된 오알켄의 핵심가치(Core value). 핵심가치는 개인 또는 전체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가치관이자 일하는 원칙과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션 수행과 비전 달성을 위해 내재적으로 공유하는 가치입니다. 오알켄의 핵심가치 중 정직신뢰, 무한도전, 프로정신, 사회적책임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즐거로운
직장생활
오알켄생활

1. 믿음을 주는 오알켄인 (정직신뢰)

믿을 수 없는 동료와 일을 함께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답은 NO입니다. 협업의 관계 속에서 신뢰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정직이란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함.”이라고 합니다. 정직 신뢰는 가장 기분이 되는 가치이자 중요한 가치입니다.

2. 끊임없이 도전하는 오알켄인 (무한도전)

컴퓨터를 좋아하여 세계 모든 책상에 컴퓨터를 놓겠다는 꿈을 꾸는 빌 게이츠, 대학교를 다니다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한 마크 저커버그. 이 둘의 공통점은 아이디어를 실현으로 옮기는 도전정신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도전을 두려워 마세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정과 보완을 통해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Just do it!

3. 최선을 지향하는 오알켄인 (프로정신)

흔히 프로라고 말하는 프로페셔널이란 단순히 전문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본인과 본인이 속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지향하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professional 한 사람이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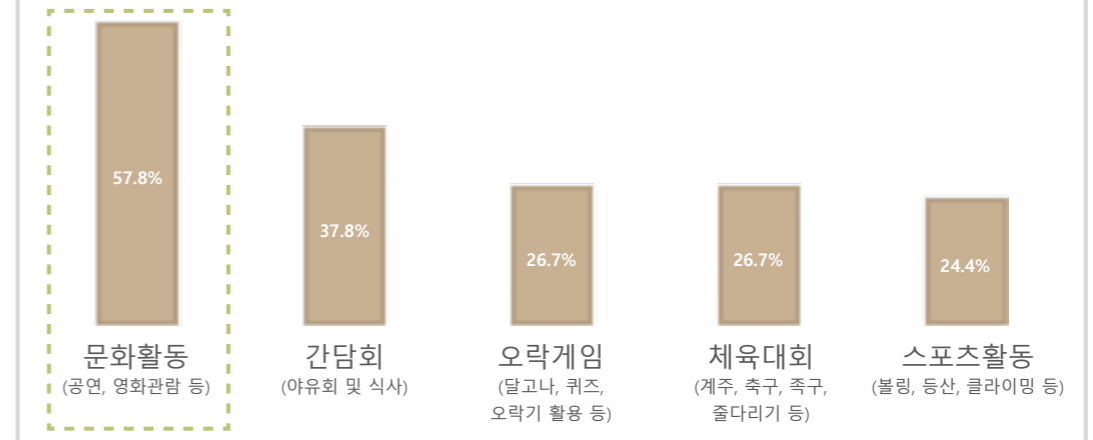
4. 함께 성장하는 오알켄인 (사회적책임)

지난 몇 년간 뉴스에서 꾸준히 나온 단어, ESG. 이제는 익숙한 단어가 되었죠. 성과와 이익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 직원과 기업 그리고 수많은 이해관계자, 사회와 환경, 다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수입니다. 오알켄 행동약속의 마지막 10번을 떠올려 볼까요? “사랑받는 회사, 출근하고 싶은 회사는 우리의 미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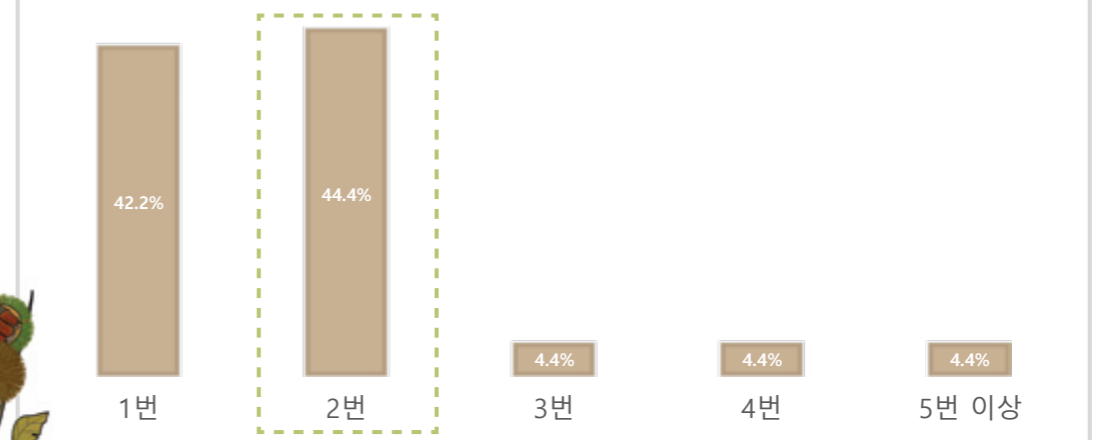
사내행사 선호도 조사

다양한 행사를 통한 임직원 소통 활성화 및 화합 증대를 위해, 9월 5일에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선호도 높은 행사는 차후에 고려하여(코로나 상황 등)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알켄 임직원들이 선호하는 행사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Q1. 즐거움과 소통화합이 증대될 수 있는 선호 행사는?



Q2. 행사를 1년에 몇번 진행하기를 희망하나요?



Research
사내행사
선호도 조사

● 녹색 돈 이야기

(오알켄 영업기획부 장윤석 부장)

Part 1. 환경은 돈이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혹은 관련된 담론들은 주말 저녁 TV 다큐에서 보는 인간의 탐욕에 파괴된 자연과 동물들이나, 4대강의 녹조 라떼, 미세 플라스틱 먹은 생선 정도로 인식되는 것 같다. 눈살이 찌푸러지고, 환경에 대한 심각성은 인정하나, 우리는 또 아무렇지 않게 스타벅스에서 일회용 Take-out 잔을 사용하고 버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기실 인류가 누려온 현실의 이기는 환경을 소모하는 방식으로 진화되었다.

우리가 편리함을 느끼는 만큼 불편해져야 하는 환경은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지 모른다.

사보에 환경보호를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환경에 대해 얼마나 단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말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먼 미래에 벌어질 이야기가 아닌 당장의 5년, 10년 후 우리의 생활과 경제 활동에 밀접한 영향을 끼칠 이야기들이다. 그리고 환경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에 관한 이야기이다.

Part 2. 큰돈이 되어가는 환경

2022년 3월, 미국의 SEC(미국 증권 거래위원회)에서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였다. 쉽게 말해서, 매년 기업의 업무 실적을 발표하는 공시에 환경보존이나, 탄소세 감소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안은 현재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이고, 바이든 정부 안에 입법화 진행이 예상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에서 제안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같은 곳이 아닌, 가장 환경과 거리가 멀 법한 ‘증권 거래 위원회’라는 것이다.

비슷한 상황은 또 있다. 유럽에서는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 산하의 ISSB(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에서도 지속가능 보고서에 기후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EU도 최근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관련 공시를 확대하는 추세임을 보여주었다. 여기도 동일하다. 회계기준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보고 한다는 것이다.

상기 두 가지 사항들은 권고가 아닌 의무 사항으로 입법 내지는 제안 중이고, 예상되는 데로 환경에 대한 기업의 방향과 계획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기업 가치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참고로 SEC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준사법기관이다). 해당 기업은 단순히 기업 그 자체만 아니라, SCV(Supply Chain Value)까지 보고 하게 되어 있어, 제반 되는 추가 기업까지 이 여파는 가히 전부라고 할 만하다.

즉, 애플의 공시에 삼성전자 탄소 감축 방안이 보고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Part 3. Carbon Credit? -- 탄소세 새로운 카르텔

탄소세는 이미 돈이 되고 있다. 가장 확실한 예로 테슬라가 탄소배출권으로 중국에서만 21년도에 분기당 5천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탄소세는 EU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데, 2005년 처음 설립 후 운영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평균 탄소 배출량을 90년도의 55% 수준까지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부터 시행 중)



[그림1] 탄소배출권 (출처:녹색경제신문)

이런 탄소세의 움직임은 유럽에서 제일 활발하며, 미국에서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선진국에서 탄소세를 시행하게 되면,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고 준비가 덜된 중국, 러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는 탄소세에 있어서 극도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어진다.

결국, 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국가만이 향후 시대에서는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이 경쟁력은 새로운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시점이 우리의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0%가 재생에너지로 사용할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조차 OECD 꼴찌 수준이다. (유럽에서 제일 앞서나간다는 독일은 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0% 목표로 진행 중이다.)

Part 4. 마치며

우리는 제품 경쟁력을 가격, 품질, 디자인이라는 가치로 배우고 평가했던 세대이다. 디자인과 품질이 관찮다면, 가격으로 구매를 결정하고, 가성비라는 개념은 인터넷 시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증폭되어서, 앞서서 가격을 비교하는 우리의 구매 환경은 모든 재화를 극강의 가성비로 몰아갈 수밖에 없어지고 있다. 결국 이 가성비의 끝은 무엇일까?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과연 제품의 가치는 가격, 품질, 디자인뿐일까?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환경과 윤리적인 부분까지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유니클로를 살 때, 가격과 디자인만 봐야 할지? 정말 인도네시아의 빨간 강물은 정말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인지? 옷 가격이 싼 게, 환경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한 결과라면?



Chemical 업계의 종사자로서, 이런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가장 큰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그 가치 판단의 변화에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환경을 돈으로 보는 시점의 전환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가져야 할 태도이고 변화이다.

[그림2] 인근 공장의 폐수로 인해 빨강게 변한 인도네시아의 강물 (출처:로이터,BBC News)

O! Language

오알캠의 해외 지사로 중국법인과 베트남법인이 있죠.
해외법인으로 출장을 가야 할 때, 공항과 호텔은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수단이지요.
공항과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베트남어는 남성의 경우 anh, 여성의 경우 chi를 사용)

공항

OOO행 비행기 탑승수속을 하고 싶습니다.

我想办理OOO航班的登机手续。

(Wǒ xiǎng bànlǐ OOO hángbān de dēngjī shǒuxù)

(워 시양 반리 OOO 항반 더 덩 지 쇼우쉬)

Tôi muốn làm thủ tục lên máy bay đi OOO.

(또이 무언 램 투 푹 렌 마이 바이 디 OOO)

창문/통로 쪽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请安排在靠窗/过道的位置。

(Qǐng ānpái zài kào chuāng/guòdào de wèizhì)

(칭 안파이 짜이 카오 횡/꾸어따오 더 웨이취)

cho tôi ghế gần cửa sổ/lối đi nhé.

(쪼 또이 게 건 끄어 소/로이 디 네펬)

탑승구는 어디에 있나요?

登机口在哪儿?

(Dēngjī kǒu zài nǎr?)

(덩 지 커우 자 날?)

Cổng lên máy bay ở đâu?

(공 렌 마이 바이 어 더우?)



수하물은 어디서 찾나요?

行李在哪儿取?

(Xínglǐ zài nǎr qǔ?)

(씽리 짜이 날 취)

Anh/Chi tìm hành lý ở đâu?

(안/치 뎀 하이 리 오 더우?)



탑승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什么时候开始登机?

(Shénme shíhòu kāishǐ dēngjī?)

(선머 쉬호우 카이시 덩 짜?)

Từ khi nào sẽ cho lên máy bay?

(뜨 키 나오 쎬 쪼 렌 마이 바이?)

제 수하물을 못찾았습니다.

我的行李不见了。

(Wǒ de xínglǐ bù jiàn le.)

(워 더 싱리 부 지안 러)

Tôi không tìm thấy hành lý của tôi.

(또이 콩 뎀 타이 하이 리 꾸어 또이)

호텔

안녕하세요. 체크인/아웃 하고 싶습니다.

你好, 我想入住/退房。

(nǐ hǎo, Wǒ xiǎng rùzhù/tuì fáng)

(니하오, 워 씨양 루쭈/투이 팡)

Xin chào. Tôi muốn nhận/trả phòng.

[신 짜오. 또이 무언 념/차 풍]

택시를 불러 줄 수 있나요?

可以帮我叫辆出租车吗?

(Kěyǐ bāng wǒ jiào liàng chūzū chē ma?)

(케이 방 워 지아오 랑 쉼즈 츠 마?)

Bạn Vui lòng gọi tắc xi cho tôi được không?

(반 부이 룡 거이 딱씨 쪼 또이 드억 콩?)

객실에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가요?

房间里可以上网吗?

(Fángjiān lǐ kěyǐ shàngwǎng ma?)

(팡지엔 리 케이 쌍왕 마?)

Có thể sử dụng internet trong phòng không?

(코 테 쓰 쯡 인터넷 짱응 풍 콩?)

내일 아침에 모닝콜을 요청합니다.

我要明天早上一个叫醒电话。

(Wǒ yào míngtiān zǎoshang yīgè jiào

xǐng diànhuà)

(워 야오 밉티엔 자오상 이거 지아오 싱 띠엔화)

Tôi nhờ gọi báo thức vào sáng ngày mai.

[또이 념 고이 바오 특 바오 쌍 응아이 마이]

공항 셔틀 서비스가 있나요?

有机场接送服务吗?

(Yǒu jīchǎng jiēsòng fúwù ma?)

(요 지창 지에송 푸우 마?)

ở đây có dịch vụ đưa đón sân bay không?

(오 더이 꼬 잇 부 드어 더언 셴 바이 콩?)

투숙하는 동안 즐거웠습니다.

住店期间很愉快。

(Zhù diàn qíjiān hěn yúkuài)

(쪼 디엔 취지엔 현 위콰이)

Tôi rất thích tôi gian lưu trú ở đây.

(또이 량 틱 또이 지언 르우 쪼우 오 더이)



독서의 계절

매년 선정되는 노벨상, 그중 노벨 문학상을 통해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의 작가들과 그들의 문학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압둘라자크 구르나의 대표작 3권을 소개합니다. 그를 이을 2022년의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압둘라자크 구르나 (Abdulrazak Gurnah)

“식민주의의 영향과 대륙 간 문화 간 격차 속에서 난민이 처한 운명을 타협 없이, 연민 어린 시선으로 통찰했다.” - 노벨상 위원회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출신의 영국 작가이며, 이방인인 난민이 겪는 혼란을 주로 다루며 평생을 난민과 식민주의에 대해 탐구하는 작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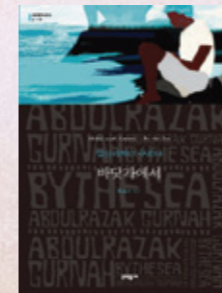


<낙원>
(Paradise, 1994)

‘낙원’은 동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가상 마을 카와를 배경으로 하며, 소년 유수프가 12살에서 17살로 성장하기까지를 그린 소설입니다. 소설 전체를 지배하는 정서는 신비로운 것을 향한 소년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과 같이 촉촉합니다. 소년은 버려짐을 겪었으나 그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을 자신의 삶을 밀고 나가는 힘으로 삼을 줄 아는 청년으로 자라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을 배경으로 하며 식민주의 혹은 제국주의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임박한 전쟁의 기미가 유수프의 눈을 통해서 암시되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다층적이고 격렬하며, 아름다우면서도 낯설다”, “여러 의미로 정교하게 쓰인 소설”이라는 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압둘라자크 구르나의 작품 소개



<바닷가에서>
(By the sea, 2001)

‘바닷가에서’는 중년의 나이에 영국행 망명길에 오른 살레 오마르와 십대 때 영국으로 간 라티프라는 두 명의 서술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잔지바르 출신으로 수십 년 후 영국의 한 바닷가 마을에서 재회하게 됩니다. 고향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의 때로는 어긋나고 대로는 합쳐지는 이야기를 통해 수십년 전 두 집안이 겪은 풍파의 전모가 드러납니다. 작가의 배경이 담겨있는 이 작품은 식민주의를 비판적으로 조명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식민주의 혹은 탈식민주의로 치환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담은 ‘바닷가에서’는 세상을 보는 관점을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후의 삶>
(Afterlives, 2020)

압둘라자크 구르나의 최신 작품인 ‘그후의 삶’은 독일이 식민지배한 동아프리카 일대에서 일어난 저항과 반란을 진압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벌어진 불운에 휘말린 사람들, 커다란 역사 속에서도 일하고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과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가족과 공동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식민주의와 전쟁으로 인해 받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되찾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하는 메시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잔반 없데이~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1500여 톤

[음식물쓰레기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폐수와 악취 유발



연간 885만톤의 온실가스 배출



쓰레기처리비용 1년에 약 8천억원

✓ 오알캠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와요.
정말 먹을만큼만 식판에 담기!
#잔반없데이

O! Campaign
잔반 없데이



알고 먹으면 더~ 영양이 되는 영양제 상식!

직장인들에게 필수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영양제!



[함께 먹으면 꼴이 되는 영양제 조합]

칼슘 + 비타민D = Good

칼슘은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로 뼈와 치아 형성에 필수적이고, 신경·근육 기능 유지, 정상적인 혈액응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D는 호르몬으로 칼슘과 인의 대사를 조절하는 영양소로 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시켜 뼈의 형성 유지 기능을 합니다. 이런 비타민D가 결핍되면 충분한 칼슘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칼슘과 비타민D는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 + 비타민C = Good

철분의 주요 기능은 혈액생성과 체내 산소 운반입니다. 또한 에너지 생성에도 필요한 요소로서 철분이 결핍되면 체내 산소의 양이 적어 쉽게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비타민C는 체내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비타민C는 거의 모든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 중의 하나이기에 영양제가 아니더라도 과일이나 채소를 철분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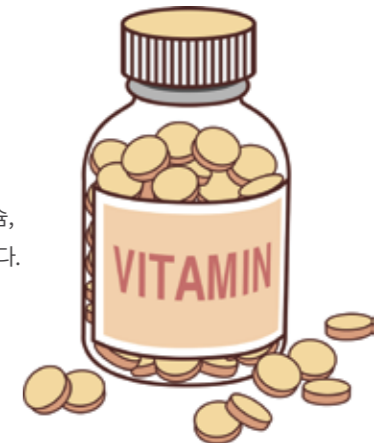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영양제 조합]

종합비타민 + 철분 = B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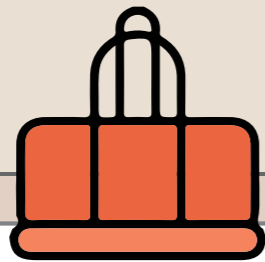
종합비타민은 말그대로 여러 비타민이 함유된 영양제를 말합니다. 비타민 이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엽산 등의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기도 합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시간차를 두고 복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녹차·홍차 등의 탄닌 성분, 유제품도 철분의 흡수를 방해해요.

비타민A + 루테인/레티놀/베타카로틴 = Bad

비타민A는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하고, 피부와 점막을 형성하고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A는 여러 형태를 가지는데 흔히 알려진 루테인, 레티놀, 베타카로틴이 비타민A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타민A와 함께 먹으면 비타민A 과량 섭취가 됩니다. 비타민A를 과량으로 섭취하게 되면 두통, 메스꺼움, 건조증, 탈모, 설사 등의 신경계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O! Health
영양제 상식



생활 속 화학 상식 테스트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평범한 일상 속에 녹아 있는 화학 현상들!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는 화학 상식이 몇 개인지 테스트해 보세요!

- ☑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100% 제거된 것이 아니라 1~2%의 카페인이 남아있어도 디카페인 커피라 한다.
- ☑ 눈이 많이 오는 날에 뿌리는 염화칼슘은 눈이 쌓인 후(後)보다 전(前)에 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 ☑ 사과와 갈변 현상을 막고 싶으면, 사과를 깎은 후 물에 담가 둔다.
- ☑ 도로의 아스팔트는 화합물인 아스팔트 5~6%와 모래나 돌가루 등을 혼합시킨 것이다.
- ☑ 빵의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갈색 부분은 “마이야르 반응(Maillard reaction)”이 나타난 것이다.
- ☑ 피톤치드는 식물이 박테리아, 곰팡이, 해충을 퇴치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화합물을 말한다.
- ☑ 바르는 콜라겐보다 먹는 콜라겐 제품이 효과가 더 좋다.
- ☑ 달걀의 흰자위는 약 90%의 물과 약 10%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 ☑ 업무 중 매시간 마주하는 모니터, LCD의 개발은 전자공학이 아닌 생물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 ☑ 오알캠에 비치된 소화기(분말형)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불을 끈다.



결과

- 6~10개 : 당신은 화학 상식왕?!
- 3~5개 : 오~ 좀 하는데~~
- 0~2개 : 나의 작고 소중한 지식...

! Test
생활 속 화학
상식 테스트

Quiz

오알캠의 사업 분야인 PCB(Printed Circuit Board)는 모든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입니다.
오알캠에 입사하게 되면 배우는 PCB 기초 교육을 기억하시나요?
이번 사보 6호의 퀴즈는 바로 바로바로 Basic PCB Quiz! 바로 풀어볼까요? Start!

퀴즈에 참여한 임직원들에게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응모방법 : 전영례 사원 메일(jyrea@orchem.com)로 문항별 정답 발송 (랜덤 추첨)

1. 아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기재하시오.

PCB는 [] 위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도체를 형성시킨 것이다.

2. 오알캠에서 생산 판매 중인 에칭(Etching) 공정 약품을 3개 이상 적어주세요.

3. 아래 브라운 옥사이드(Brown Oxide)의 공정 순서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탈지(Cleaner) - 수세 - []
- 브라운 옥사이드(Brown Oxide) - 수세 - 건조

4. [현상 - 에칭 - 박리] 공정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5. PCB 회로형성방법 중 동박 적층판 위에 회로가 형성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에칭하여 형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6. 드릴 가공 후 Bit에 의해 밀려 올라온 Bur를 Buff 연마 등으로 제거하는 공정은 무엇일까요?

7. 세부제조공정 중 CCL은 무엇의 약자일까요?

8. 전처리(Pre-treatment) 과정에서 과산화수소와 황산을 2:8 비율로 혼합 후 노즐로 분사하여 조도를 형성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난호 이벤트 당첨자>
전략기획팀 김선미 과장
PKG 선행개발팀 채강호 주임
PKG 선행개발팀 박성우 주임
분석팀 이석희 사원

! Quiz
기초 PCB
Quiz



O_sRchestra
2022 | Vol.6
www.orchem.com



31th
2022.07.01

ORCHEM[®]